

전남 초등교사 '광주로...광주로...'

올 광주 임용시험 289명 응시...예년의 3배

교사 대거 이탈로 전남교육 황폐화 우려

광주지역에서 근무하려고 올해 광주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재응시한 전남 현직 교사가 예년의 3배에 달하는 2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에서 올해 선발예정인 초등교원 465명의 62%에 해당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들이 시험공부에 전념하는 바람에 학생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소련교사들의 대거 이탈로 교원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원서접수를 마감한 2013학년도 광

주 초등교사 임용시험(일반) 지원자 806명 가운데 350명(43%)이 타지역 교사인 것으로 집계된다. 타 지역 교사지원자 350명 가운데 전남지역 현재 교사는 289명으로 82%에 달했다.

지난해 전남교사 중 광주초등 임용시험 응시자는 107명이었다.

전남 현직교사의 임용시험 재응시가 올해 급증한 것은 방대한 출제 범위와 암기형 문항 위주의 5지 선다형 객관식 1차 시험(교육학·교육과정)이 올해부터 논술·서술형으로 바뀌고 전형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

는 등 시험 준비 부담이 줄어서다.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꾸준히 공부해온 수험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객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어느 정도 출제범위와 예상문제를 끊어볼 수 있는 논술형·서술형 시험으로 대체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초등교사 모집정원을 지난해 225명에서 315명으로 크게 늘린 점도 작용했다.

전남 교육계에서는 '수험생 교사'

들이 결국 학생지도를 게을리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를 중 일부는 광주 초등 임용교사 1.2차 시험이 완료되는 내년 1월까지 공부해야 한다.

전남도 교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면 신규 임용교사를 다시 뽑아야 하며 그 공백기간에 근무할 기간은 고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청소년 독립페스티벌'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인 지난 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2012 광주 청소년 독립페스티벌'이 열렸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청소년 동아리부스, 전시작품 등을 둘러보고 있다.

인권조례 제정 공청회

광주 서구 내일 개최

모든 학교 방문자는 출입증 달아야

내년부터 ... 2015년까지 경비실 설치

내년부터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바로 퇴교 조치되며 교사와 학생도 교내에서 교직원증이나 학생증을 달고 다녀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를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가 올해 7~9월 전국 1만1천여개 학교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시도 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마련했다.

조사에서는 많은 학교가 외부인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데다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조사에서 전국 초·중·고의 32%인 3693곳만 경비실을 갖춰 외부인을 통제할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특별 교부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해 2015년까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 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학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마련돼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보면 바로 신고하고 이후 배움터지킴이 등 보안 인력이나 교직원이 출입증을 받게 하거나 퇴교 조치를 한다.

교과부 조사에서 전국 초·중·고의 32%인 3693곳만 경비실을 갖춰 외부인을 통제할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특별 교부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해 2015년까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 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경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서구는 6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최우숙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는 김은아 서구의원, 조상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강행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유영애 서구여성단체협회장, 우천구 서구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서구는 이번 공청회에서 주민 100여명의 의견을 취합해 인권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경기자 kki@kwangju.co.kr

여수시가 회계과 공무원 김모(47)씨의 76억원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김씨가 횡령한 공금을 환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여수시는 지난 2월 김씨의 범행 기간 경리팀장을 맡았던 K(53)동장에 대해 5일자로 직위제한 조치했다.

시는 K동장이 당시 김씨의 직속

결재라인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회계과 감사 등 관

무의미한 연명치료

법으로 중단시킬까

정부, 제도화 추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주장 또는 대리인을 통한 연명치료 중단 등 행정에 대해서는 대국민 인식 조사·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며, 구체적 추진 방안은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또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롭 06시 57분 해진 17시 34분

달롭 22시 37분 달진 11시 54분

찬바람 뻥쌩

한기를 동반한 상층기압골의 영향으로 춥고 허리겠다.

광주	구름많음	7/14 C
목포	구름많음	9/13 C
여수	구름많음	9/15 C
나주	구름많음	7/14 C
완도	구름많음	9/15 C
구례	구름많음	7/14 C
강진	구름많음	7/14 C
해남	구름많음	7/15 C
장흥	구름많음	7/15 C
순천	구름많음	7/13 C
영광	구름많음	7/13 C
진도	구름많음	9/14 C
전주	흐림	7/14 C
군산	흐리고 가끔비	7/13 C
남원	흐림	5/14 C
흑산도	구름많음	11/13 C

〈오전〉 비다 풍향 풍향

서해 남부 일비단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일비단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일비단 남비단 1.5~2.5m

주의 낮음 낮음

〈오후〉 비다 풍향 풍향

서해 남부 앞비단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비단 남서~서 1.5~3.0m

남해 서부 앞비단 서~북서 1.0~2.0m

여수 1.5~2.5m

밀물 낮음

목포 05:18 10:34

18:04 23:29

남해 서부 앞비단 서~북서 12:43 05:59

18:47

◇주간날씨

날짜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날씨 날씨 6/13 7/14 8/16 7/17 9/16 10/14

최저/최고

태스크포스도 꾸렸다. 감사 및 회계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공금환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팀은 회계검사와 결산확인, 세외수입과 세입세출의 현금감사 등의 업무수행을 바탕으로 감사의 은닉 예산 찾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시가 이미 가입한 김씨 본인, 장인과 처남 등 세 사람 소유 3채 아파트를 비롯, 김씨 관련자 16명의 금융계좌 31개 중 정지조치한 25개 계좌 등을 대상으로 환수를 벌였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횡령금 유입이 확인된 돈, 부당이득이 확실한 관련자 돈 등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 공금횡령, 경리팀장 직위해제

市, 문책·처수... '공금환수 태스크포스' 구성도

여수시가 회계과 공무원 김모(47)씨의 76억원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김씨가 횡령한 공금을 환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여수시는 지난 2월 김씨의 범행 기간 경리팀장을 맡았던 K(53)동장에 대해 5일자로 직위제한 조치했다.

시는 K동장이 당시 김씨의 직속 결재라인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회계과 감사 등 관

련업무 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공무원법상 공식징계(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등 엄중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감사원에서는 퇴직 공무원을 비롯해 전·현직 관계공무원들까지 불러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등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횡령한 공금을 환수하기 위한

나 취약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진정한 개혁의 대상이 누구인가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 모연합'(교학연)도 지난 31일 낸 성명에서 성적조작 채용비리를 저지른 광주시교육청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결정 철회와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영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225-5110

세기보청기 630-1(부산광역시

동구) 701-1000

세기보청기 630-1(부산광역시

동구) 701-1